



저작자표시-비영리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유근택 교수 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인간의 신체표현을 통한
식물적 삶의 고찰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201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임수정

인간의 신체표현을 통한
식물적 삶의 고찰

- 본인작품을 중심으로 -

유근택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동양화과

임수정

인 준 서

임수정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18년 5월

심사위원장.....(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심 사 위 원.....(서명 또는 인)

성신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논문 개요

본 논문은 2018년 3월 ‘숲의 초상 展’에 전시된 연구자의 그림에 나타난 절단된 신체표현과 연관된 식물성에 관한 연구이다. 연구자의 그림에 나타난 절단된 신체의 표현과 다양한 식물의 표현은 동양화 재료를 사용하여 추상화된 표현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절단된 신체를 그리는 것까지 변화되어왔다.

2010년대 한국사회의 이념적 변화와 다양한 충돌, 그에 따른 반응으로 이루어진 연구자의 대학시절과 현재까지의 환경은 작품의 변화과정으로 나타나고, 현재 일어나는 남녀 대립, 빈부격차, 남북한 문제와 같은 우리나라의 역사와 흐름에 맞춰볼 수 있는 다양한 반응으로, 시대 흐름 속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는 연구자의 신체가 식물로 확대, 구체화된 것을 볼 수 있다. 본 논문은 여성의 신체가 가진 특성을 식물적 삶을 통한 고찰로 이어진 연구자의 사회적, 개인적 관심과 반응, 성찰로 변화되어온 연구이다.

본 논문에서 연구자는 2016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이듬해 11월 17일부터 17년 1월 15일에 걸쳐 일어난 국정농단 사건을 연구자의 그림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가장 큰 주요 사건으로 본다. 극단으로 치달은 사건들의 변화와 함께 연구자의 의식도 함께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었다.

사회 질서의 전복은 거의 모든 예술가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현대 사회의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고찰이 세대에 거쳐 보편적으로 행해지는

가운데, 실제로 체험으로의 그림보다 낫선 세계, 소외된 세계, 부조리한 것과의 마주하는 현대에 와서 그림의 영역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세계의 문제와도 연결된다는 개념이 일반화 되었다. 인과관계가 뚜렷한 사회현상 안에서 외면당한 개인이 자신의 신체, 삶과 죽음이 사회 안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고 서로 멀어질 수 없다는 견해는 앞서 언급한 두 사건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겼고 시간차를 두고 차례로 일어난 이 두 사건이 연구자의 작업에 크게 영향을 준 사건이라고 본다. 사회 시스템 안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도 그것에 반하는 삶이 아닌, 예술가로서 예술적인 응답으로 일관적인 태도를 취한 대표적인 작가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 1909~1992, 영국)은 작가 스스로가 처한 환경을 구성된 화면(프레임)안에 빠인지 살인지 구분이 어려운 신체를 배치하는 것으로 자신의 상황을 가장 극명한 방식으로 표현하면서도 자신의 삶에 대한 애증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인간 존재의 극단적인 상태를 히스테리적인 설치를 통해 보여주는 데미안허스트(Damien Hirst, 1965~, 영국)는 현대인의 삶과 죽음, 예술과 의학이라는 이분법적 세계관을 보는 사람에게 불쾌, 공포를 비롯해 유머와 해학이라는 다중적 감상을 남기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한국의 대표적인 한국화가 천경자(1924~2015, 대한민국)는 해방이후 한국사회 안에서 일어나는 혼란과 세계여행을 통한 세계의 목격을 모성과 사랑이라는 주제로 화려한 여인과 풍경, 몽환적인 세상을 자신의 작품에 담아낸다. 이러한 세 명의 예술가는 일반적인 상황과는 동떨어진 비현실적인 인물 또는 세계의 표현이 예술작품에서 근본적이고 강력한 감각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일 뿐이며 작가에게 던져진 사회적 화두를 능동

적인 자세로 표현함과 동시에 가장 감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연구자의 작품은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충격과 함께 일어난 개인적 변화를 감정을 앞세워 빠르게 드로잉 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그렇게 시작된 그림은 색채로 가득한 이미지 또는 아예 색채가 배제된 이미지로 구현되고 식물 또는 신체표현으로 나뉜다. 이렇게 나뉜 형식에는 항상 <두 인물>, <유토피아-풍경>, <자화상> 이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여기서 연구자는 인물들의 관계를 식물로 나타내고, 사회 속에서 일어나지만 보이지 않는 폭력을 신체 절단을 통해 보여준다. 그리고 두 가지를 동시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세계로 출현시키기도 한다. 몇 번의 우연한 사건들과 사회적 이슈를 통해 연구자는 스스로를 식물화 시키고 기법적인 변화보다는 주로 신체표현의 변화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주로 주제가 되는 자화상은 가장 가까이 볼 수 있는 인물이자 대화 상대인 자신을 식물성과 곧장 일치되는 요소로서 신체표현 도구로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전통 기법에 익숙해 있던 연구자의 그림은 풍경에 초점이 주로 맞춰져 있었으나 빠르게 그리는 드로잉의 형식으로 변화됨에 따라 다양한 매체의 실험이 가능해 졌다. 콘테로 풍경을 표현하려 했던 것을 시작으로, 휴대가 용이한 점, 당시의 감정을 가장 빠르고 예민한 표현이 가능한 건식재료의 꾸준한 사용이 그림에 변화를 주었으며, 전통재료나 기존 미술용품이 아닌 벽돌가루, 흙, 콘크리트 가루, 먼지 등과 같은 거친 질감을 가진 다양한 재료를 그림에 사용하였다. 거칠고 속도감 있는 풍경 표현, 형태를 묘사하는 그림이 아닌 순간적인 감정분출로 인한 물감의

튀김, 중력에 의해 흘러내리는 드리핑 기법, 종위 뒤에 남은 자국, 실수로 칠해버린 부분을 이용해 점점 작가의 의도가 줄어드는 드로잉 기법으로 변화했다.

식물성에 대한 고찰로부터 절단된 신체까지의 변화를 겪은 연구자가 지난 짧은 연구 생활동안 자신을 표현하고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노력은 위와 같은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사회현상의 가운데서 가장 예민하고 날카로운 20대를 보내고 있는 연구자의 체험은 모두 사소한 노트에서 시작하여 그 당시 느끼는 모든 감각을 ‘통각’을 통해 인식하고, 그것이 곧 내면에서 비춰지는 ‘두려움’으로 나타난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자가 표현하는 신체는 연구자가 체험하는 사회적 불안감이고, 불안감과 싸워내는 끊임없는 연구자의 반성과 두려움을 통제하려는 의지가 만들어진 현대인과 연구자 자신의 얼굴이라고 결론 지을 수 있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II. 작품의 이론적 배경	
1. 폭력의 이데올로기	
1) 신체 정치(Corporal Politics)	5
2) 에코 페미니즘(Eco Feminism)	8
III. 작품의 조형적 표현	
1. 식물에서 신체로 관심의 전환	13
2. 목탄 드로잉과 드리핑 기법	23
IV. 결론	27

참고문헌

ABSTRACT

작 품 목 차

- 작품 1. 임수정, <입이 없는 것들>, 18.5×26.0cm, 원고지에 연필드로잉, 2016
- 작품 2. 임수정, <구근을 지키는 눈1, 시리즈>, 24.2×24.2cm, 면천에 먹, 2017
- 작품 3. 임수정, <구근을 지키는 눈2, 시리즈>, 24.2×24.2cm, 면천에 먹, 2017
- 작품 4. 임수정, <무제>, 25.0×16.0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17
- 작품 5. 임수정, <소리없이 노래하는 것>, 55×25cm, 나무판넬에 혼합재료, 2017
- 작품 6. 임수정, <자화상>, 23.0×30.0cm. 원고지에 혼합재료, 2017
- 작품 7. 임수정, <병아리콩 통조림>, 23.0×30.0cm, 원고지에 혼합재료, 2017
- 작품 8. 임수정, <타나토스 레크레이션>, 23.0×30.0cm, 장지에 혼합재료, 2017
- 작품 9-1. 2 임수정, <귀먹은 청중>, 259.1×193.9cm, 장지에 목탄, 2018
- 작품 10. 임수정, <군중>, 240.0×150.0cm, 캔버스에 혼합재료, 2018

도 판 목 차

도판 1. 고야, <전쟁의참사>, 1810-20

도판 2. Porster, <CORPORAL POLITICS SHOWING> December 11, 1992
- February 7, 1993

도판 3. Robert gober, <male and female genital wall paper>, 1997

I. 서 론

연구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천의 한 공장단지 근처에서 유년기를 보내고 내부적인 요인으로 군인 가정에서 자라 가부장적 체도에 노출된 어린 시절을 보냈다. 뜨거운 증기가 즐비한 거리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똑같은 옷을 입은 노동자들, 그리고 그 가운데 뜨거운 증기를 견디는 어머니. 그리고 반대로 교육받은 군인 남성으로, 책상에 앉아 펜대를 잡고 글을 쓰는 아버지 에 대한 기억이다. 살갓이 짓무르고 화상을 입은 손과 의자에 앉아 조용히 펜을 쥐고 있는 손이 연구자의 작품에서 때때로 ‘잘린 손’으로 ‘상징화’ 되는 것은 연구자에게 체화된 경험을 감각화 하여 작품으로 만들어 낸 결과이다.

그래서인지 연구자의 관심사는 두 가지 양상의 ‘조화’와 ‘화해’ 두 가지 양상에 관심을 두게 하였다. 물리적인 요인에 의해 다친 손과 또 그렇지 않은 매끄러운 손은 관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인정하기가 어렵지만 결국 이것은 살(flesh)과 뼈(bone)로 이루어진 물질이라는 명제로 용서될 수 있다. 고통에 죽어가는 강아지를 보고 그것이 못생겼다(Ugly)고 얘기하던 프랑스 남자가 인도의 길거리에서 사람들을 붙잡고 저 생명을 얼른 거두어 달라고 얘기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그들의 종교적 교리에 따라 어떤 생명도 억지로 거둘 수 없기에, 길거리에 누워 가쁘게 숨 쉬는 강아지의 마지막 순간을 가만히 지켜 볼 수밖에 없는 상황. 결국 목숨을 붙들고 있는 것은 그것 스스로의 의지이고, 고통을 동반하지만 버티내는 아주 능동적인 자세이다. 그리고 그것이 죽어가는 모습이 못생겼다는 의견과는 상관없이 생명은 결코 한 번도 추한 모습을 지니지 않으며, 다른 생명으로부터의 생명 절취와 같은 수동적인 자세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 연구자의 견해이다. ‘죽어있거나 살아있거나’의 문제

였지 여기서 어떤 모습으로 태어나고 죽는가는 중요하지 않고 그것이 태어났고, 죽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연구자는 그 생명이 천천히 꺼져가는 것을 보며 수많은 날과리 때와 혈떡이는 앙상한 배를 집중해서 바라본다. 혼란스러운 감정은 다시 옆에 앉은 프랑스 남자의 무표정한 얼굴을 보고 다시 확인이 가능하다. 그것이 다시 살과 뼈로 나뉜다는 사실, 비틀어진 뱃속은 결국 피와 장기, 세포로 나뉘어진다는 확인. 그 후에야 결국 차가운 고기 덩어리가 될 생명이 가진 큰 의지, 투쟁하는 힘만이 연구자가 작업을 하는 동기이자 목적임을 알아차린다.

이런 차가운 고기 덩어리들의 싸움은 이제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의 문제로 옮겨가게 된다. 이것은 곧 사회적 이슈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나고, 그 첫 번째 사건은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났다. 꽃같은 어린 생명을 거두어 간 사건을 두고 많은 예술가들이 각자의 시선으로 많은 예술작품을 만들었지만, 신기하게도 연구자의 눈에 그 슬픔 이면에 보인 다수의 죽음은 또 다른 죽음의 방관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였다. 연구자의 삶이 죽음처럼 느껴지던 당시 2014년, 어린 생명들이 사회의 무책임으로 생명을 잃었고, 같은 해 송파의 세 모녀는 자본이 넘쳐 폭발하는 시대에 생활고로 고통받다 결국 생명을 스스로 거두었다. 개인의 고통과 사회의 고통은 어떻게 견주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다뤄지는지에 대해 생각한 결과, 고통받는 개인과 고통받는 사회는 영겁의 세월을 거친 '돌'이라는 물질로 조화를 이룰 수 있었다¹⁾.

두 번째 사건으로 국정농단 사건 이후의 그림을 들어, 2016년 11월부터 2017년을 연구자의 '군중' 시리즈가 나왔음을 알 수 있다. 거대한 사회 시스템 안에서 폭력적인 사회 문제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작가가 취한 것은 어떤 것도 권위를 가지고 다른 생명을 해하거나 상처 줄 권리가 없다는 결론이

1) 고대 원소에 대한 관심은 본론에서 다룬 '이론적 배경'에서 구선정, 「빌 비올라(Bill Viola)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물불공기흙 :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자연요소에 대한 이론으로 접목고찰」을 바탕으로 다시 짚어볼 기회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다. 결국, 이러한 거대한 체제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생명력과 직결 되는 '식물적 움직임' 이다.

본 논고에서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작가의 태도가 연결되어 인간과 자연 또는 인간과 동물에 대한 반응으로 나타난 그림을 분석해보고, 연구자의 작품을 이해 하는데 있어서 왜 신체에서 식물로 대상이 연결되어 변화하는지, 그리고 한국 사회 속 팽배한 남성주의적 현상에 여성으로 살아가며 느낀 폭력성을 어떻게 인지하고 대처했는지 연구자의 태도 안에서 표출된 감정을 작품을 통해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하였다.

본론 1장에서는 이미지에서 나타난 신체의 절단과 식물의 절단을 이론적 배경을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신체절단을 모티브로 작업한 채프먼 형제(Jake and Dinos Chapman, 1966, 62 ~ 현재, 영국)에게 영향을 미친 고야(Francisco Goya, 1746 ~ 1828, 스페인)가 자주 사용한 '절단된 신체'의 모티프가 사회체제의 전복과 혁명을 꾀하는 시기에 볼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대표적인 전시인 1992년 MIT 대학에서 진행한 <신체 정치(Corporal Politics)>를 예로들어 신체 기관의 절단에 따른 고통, 아픔, 유동체에 대한 담론을 예로 설명하고, 거대 자본에 의해 격하되는 인격과 생명 인식의 문제점, 경제, 사회적 지구화에 대한 인식으로 자연과 자원을 약탈하는 인간의 폭력적 태도에서 연구자가 취한 식물적 태도를 '식물성 이론'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

2장에서는 본인의 성장배경에서 보이는 생명력에 대한 집착과 개인적, 사회적 체험을 통한 변화를 깊이 있게 들여다본다. 살과 뼈, 돌, 나무, 자화상으로 이루어진 이미지에서 가족과 개인, 사회와 개인, 개인과 개인에서 연구자가 극복해야 했던 트라우마를 새롭게 인지하며 그것이 결국 연구자 신체와 그림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으며 어떻게 인간과 동물을 통한 '절단'이 나타났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자의 작업은 한국화라는 전통기법에서 시작하였다. 그 시작과 뿌리가 동아시아에 있고, 그것이 지금의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에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하다. 허나, 전통재료와 다른 종류의 재료를 배척하기 보다 각자 재료들의 특성과 한계를 인식하고 다양한 재료를 이용해 연구자의 생각을 풀어내는 것에 개인적인 목표가 있었다. 앞으로 재료로부터 더욱 자유로워지기를 희망하면서도 물질 중심의 사회에서 어떤 생명을 해하지 않고 유용한 재료, 물건을 이용하게 되는 날을 꿈꾼다.

II. 작품의 이론적 배경

1. 폭력의 이데올로기

1) 신체 정치(Corporal Politics)

“20세기 후반 예술에서 절단된 신체라는 개념은 질병, 죽음 뿐 아니라 성적 아이덴티티, 동성애공포증, 사회적불평등, 야만적 행위 등을 포괄할 수 있는 예술 영역 탐구에 대한 장소로 가능하기에 이른다. <신체 정치(Corporal



(도판 1) 고야, <전쟁의참사>, 1810-20

Politics)> 1992년 전시 <신체 정치>는 일반 대중에게 신체 절단에 따른 고통, 아픔, 유동체에 한 담론에 주목할 것을 요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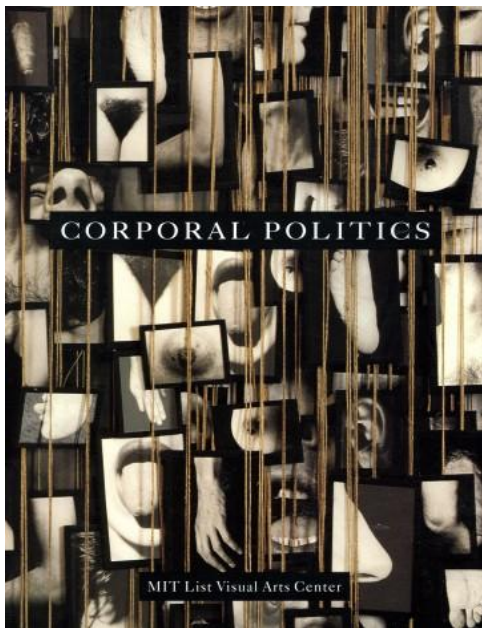
다시 말해 20세기 후반 이러한 신체 기관 목록들의 출현은 절단된 신체에 대한 주목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²⁾”

예술가들은 나름대로의 전략으로 작품을 보여주는데, 이 중에서도 인간과 동물의 체(體)와 절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경우, 감상자에게 피와 내장기관이라는 매체가 아주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인식하게 한다. 연구자는 이러한 물질로 고통과 잔혹감, 공포, 죽음, 더러움 등의 복합적인 감정을 유발시키는 기법적인 방법을 차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통의 감정이입 또는 직접적인 공감을 이끌어 내는 것 보다 연구자가 내면에 있던 불안의 표출, 상실된 감정의 촉발 매개로 ‘절단’이라는 개념을 이용 하는데 더욱 큰 의의가 있었다.

프랑스 혁명 시기의 단두 처형대에 오른 얼굴들과 고문 뒤 죽은 사람들을 그린 고야는, 그것이 잔혹하고 자극적인 이미지이기 전에 이데올로기를 지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보고 그것의 이미지를 전달해주는 데에 지금의 의의가 더욱 크다. (도판 1) 고야는 이러한 처형과 전쟁의 참혹함을 그대로 기록으로서 제시하는 역할로 감상자에게 또 다른 감정을 환기 시켜주는 역할이 되고, 특히 전쟁을 겪은 세대와 전쟁이 끝난 후 더이상 생명 보존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 세대 모두에게 귀감이 되어왔다.

‘육체 훼손’, ‘고통의 전달’ 과 같은 특이성은 연구자에게 불쾌한 감정의 전달보다는 전 지구적 문제에 대한 방관과 무관심이 병적으로 변져가는 지금의 태세를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알맞는 표현 방법이라 생각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생명을 뺏는 것 자체에 대한 비인간적 유희와 그로인한 생명 경시 현상은 아직도 존재하며, 문제는 지금의 막대한 자원으로 전 지구인이 먹고살기 충분한 자본에도 불구하고 8억이 넘는 기아문제,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에

2) 이미경, 「절단된 신체 조각 연구」, 숙명여대, p. 172



(도판2)Exhibition Poster, <CORPORAL POLITICS SHOWING>

다른 상이함을 전달해 주는 대표적인 작가들이 기획한 전시를 통해 신체절단의 이유를 뒷받침 해주는 1997년 MIT대학에서 진행된 전시 “신체 정치(Corporal Politics)³⁾” 가 있다.

작가들은 당시의 사회 안에서 개인이 가진 인간자체의 형태, 그리고 예술가로서의 자기 아이덴티티, 사회체제의 역류 속에서 느끼는 감각을 신체의 확대와 절단 등으로 표현했다. 그리고 신체 절단은 폭력, 억압, 사회적 부조리, 육체적, 심리적 스트레스가 지배하는 세상에서의 삶의 결과⁴⁾라고 밝히고 있다. 신체의 나약함을 강조하고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 신체에 실제로 가해진 폭

3) 8명의 현대미술 작가들 키키 스미스(Kiki Smith), 로버트 고버(Robert Gober), 로나 폰딕(Rona Pondick), 아네트 메사제(Annette Messager), 루이스 부르주아(Louise Bourgeois), 데이비드 워자로위츠(David Wojnarowicz), 릴라 로쿠르트(Lilla LoCurto)와 윌리엄 아웃콜트(William Outcault)이 기획한 전시이다.

4) <Corporal Politics> 전시 큐레이터 포스너(Helaine Posner), Jean Robertson, Craig Mcdaniel, p.141.

급급한 무한 이기심을 넘어서 재물과 명예를 위한 다른 의미로의 확산이 자행되고 있는 것, 그 종류와 방법도 다양해졌다는 것이다. 이렇게 잔혹하게 변화되어가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인간 사회 그 자체를 보고 느끼는 대로 표현하게 된 것이 바로 ‘신체 절단’ 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맥락에서 연구자가 느낀 사회의 단면을 ‘절단’ 으로 표현한 것과 같이 절단된 인간의 신체를 보여주거나 지나치게 확대된 이미지로 인간의 신체와는

력, 성적 억압, 손실 등에서 그것이 기인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절단된 신체가 붙어일으키는 공포는 고통스런 자전적인 경험, 신체적 고통, 사회의 모순에 대한 항거에서 비롯된다.

즉 이 전시에서 볼 수 있는 조각들은 결국 신체 절단이라는 의미가 단절되어버린 ‘사회적 절단 개념’ 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이상적인 신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고통스런 한 인간을 재현하는 역동적인 움직임인 동시에, 전통적인 아름다움의 개념 ‘건강, 전체성’ 과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미의 주체가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스스로 정의하려고 하면서 동시에 그 절단의 주체가 사회라는 것을 폭로하는 역할을 한다.

2016년부터 나타난 신체 절단의 형태는 이렇듯 다른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이루어진 전시로 이야기가 가능해졌다. 극단적으로 잘린 신체의 형태는 고통의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해석된다기 보다, 분노와 고통을 받아들이는 자세에서 예술가가 취한 자세라고 보여질 수 있다.

작품에서 보이는 인물의 절단은 하지만 그로테스크하거나 사실적인 표현이 아니라 생소한 인물의 형태로 쉽게 의미를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분명히 매체로서 신체를 이용하고, 사회 문제에 대해 이야기 한다는 점에서 “신체 정치(Corporal Politics)” 와 비슷한 이론적 배경을 갖지만 또 한편으로는 실제로서의 이미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점, 조각이 아니라 페인팅이라는 점에서 또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2) 에코 페미니즘(Eco Feminism)

신체 정치(Corporal Politics) 전시에 참여한 로버트 가버(Robert Gober)의 작품을 보면, 절단보다는 신체 생식기의 출현이 눈에 두드러지는데, 인간 본연의 모습에서 오는 구별보다는 그 형태 자체의 자연스러움, 생명의 조화,

경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이어나갈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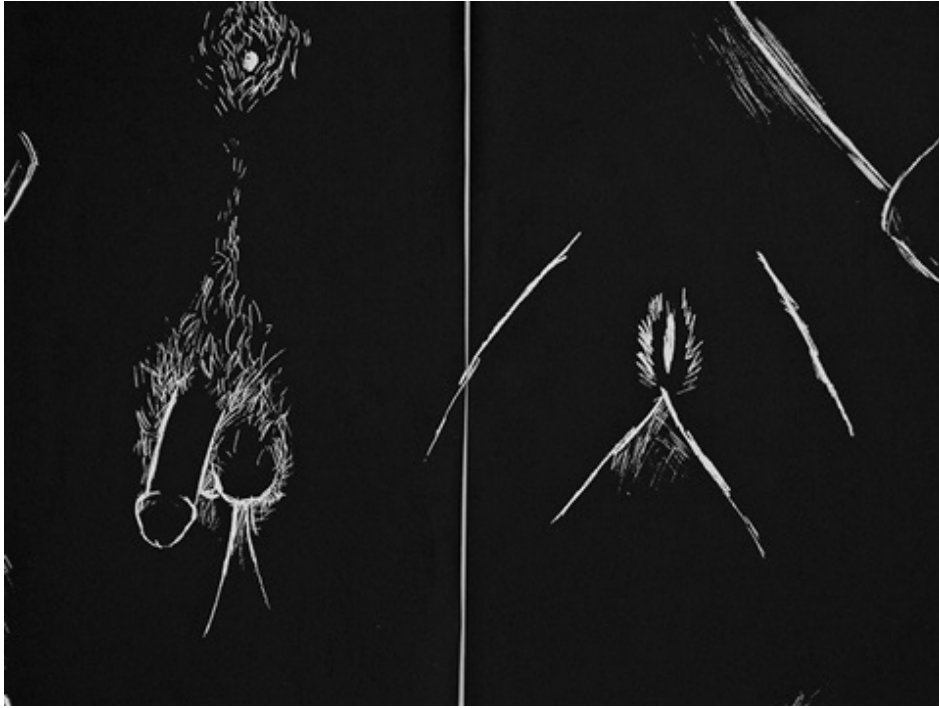
이처럼 ‘자연’ 과 ‘생명’ 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할 때, 성별의 구분보다는 본연 자체로의 모습을 존중하는 것이 연구자가 그림에서 성별을 뚜렷히 알 수 있는 생식기를 출현시키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데올로기의 변화 과정에서 불필요한 희생이 따라오게 된다는 것에 동의하지 않고, 그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아픔까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술가이며 그것이 불가피하며 피할 수 없었던 명제였다고 하는 것은 예술가가 아니다⁵⁾. 지금의 격렬한 사회 변화의 장 안에서 연구자는 변화의 과정이 항상 폭력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에 대한 의문과 공포를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억압성과 강제성이 연구자는 가부장제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수용하고 인정하는 대립되는 위치에 스스로 서게 되기를 희망했다. 때문에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삶의 태도를 결정해야만 했고 그러한 생각의 기반이 에코 페미니즘적 태도와 일치하다는 것을 슬러미스 파이어스톤의 「성의 변증법」에서 찾을 수 있었다. 파이어스톤은 우리가 더욱 큰 문제, 기록된 역사를 넘어서 ‘동물계 그 자체’ 로 거슬러 올라가는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이야기한다.

기본적으로 에코 페미니스트들은 환경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남성중심적 세계관에 두고 있다. 모든 생물이 평등하다는 원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생태학에 먼저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여기서 생태학(ecology)의 의미는 ‘세계의 집’ 혹은 ‘가정’ 을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Oikos’ 라는 용어에서 유래되었다. 이는 곧 모든 지구를 자연뿐 아니라 인간의 ‘가정(home)’ 으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에코 페미니스트 개념은 앞선 페미니스트 개념보다 나중에 나온 이론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연구자가 에코 페미니즘을 가져온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연구

5) 「이데올로기"와 "폭력"의 관계성 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이평진, 2012



(도판 3) Robert Gober, <male and female genital wall paper>, 1997

자가 그림을 그리는 동안 생각하고 읽고 느끼는 것을 이론적으로 접근할 때 경험을 통한 표현에 있어 적합한 이론적 토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식물을 타자화시키는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에 반해 스스로가 식물이 되기를 자처했다면 이것은 에코 페미니즘에서의 근본원리인 ‘생물 중심 평등 (biocentric equality)’ 와 같은 능동적 주체로서의 자연 인식 토대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에코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이 남성과는 달리 자연과 특별하고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식하며, 지모신(Mother Earth or Gaia) 이미지를 다시 사용해 ‘재신화’ 하는 것이 발견되는데, 연구자는 어느 성별이 더 우월하다던지 여성성의 신화화라는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단지 인간/자연 관계에서 상호 고립 존재가 아닌 ‘관계적 자아(relational self)’, 삼라만상과

관계를 맺는 ‘생물중심 평등’의 자아관으로 자연을 보는 원리에 동의한다.

연구자가 실제로 의/식/주 모든 부분에 죽은 동물의 어느 부분도 소비하지 않는 것, 그림의 재료를 바꾸고, 소재, 주제를 고민하는 것은 ‘몸의 정치를 만드는 것⁶⁾’이며 이제는 행동과 생각, 곧 개인이 먹고 입고 소비하는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으며 사회적이고 자연적이며 인공적인 세계에서 존재는 참된 형태로 단지 문화와 자연, 인공적인 세계에 거주만 하는 형태라고 생각한다.

결국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폭력’처럼 인간과 다른 생명체간의 ‘폭력’ 또한 하나의 사회체제 변화의 일련 과정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 본성에서 나오는 감정의 분출이 정당화 되기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완전히 부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닌, 살아가고 죽는 과정에서 인간이고 동물이라면 어쩔 수 없이 느끼는 생명의 무력감 또는 삶이 가져다 주는 유한성에 대한 저항일 수 있다는 결론이다.

상류 쪽엔 화장 차레를 기다리는, 뉴델리에서부터 낮익은 시체가 굴러 있고 한편에선 연기가 솟아오르고 있었다. 돈 많은 사람일수록 장작개비가 높이 쌓인 위에서 화장되고, 돈 없는 사람들은 꽃잎만 뿌린 강물에 그대로 던져진다고 한다. 하여튼 시체가 강물에 던져지기를 모두 원하고 있었다. 오직 재생을 위해서 말이다.⁷⁾

생명이 사라지는 불꽃 앞에 서서 그것이 신체로서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순간, 인간은 다시 폭력의 현장으로 스스로의 몸을 안으로 내던져버린다. 그것과 비슷한 바라나시의 화장터를 직접 목격한 후 천경자 화백이 느낀 당시의 감정과 그것에 대한 말을 빌려왔다. 이념적 대립, 가난, 각종 뉴스나 사회면에 나올 법한 사건이 결국 죽음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법 하지만 생명이 사라지는 불꽃 앞에 서서 그것은 중요성을 상실하게 된다. 끝나지 않을 무한 재생이 이야기하려는 것은 가장 단순한 ‘생명’이었을까.

6) 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 삼척대학교,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 9권, 2001

7) 천경자, 「꽃과 영혼의 화가 천경자」, 랜덤하우스중앙, 2006, p. 158 참조

이렇듯 연구자가 대면한 세상은 또 다시 ‘살생’에 대한 고찰을 이어가게 만들었다. 앞서 언급된 시대적 상황과 연구자의 성향을 토대로 그림이 식물에서 신체로, 혼합매체에서 목탄과 같은 변화를 시도하고 자연주의, 생태주의, 여성주의에 관심을 가지는 여성으로서 취해야 할 태도, 또는 인식하고 있어서 해결이 어려운 여러 난제들이 심화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것은 특히나 남성 위주의 세계관에서 평등을 지향하기 어려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려는 과정에서 연구자가 느끼는 사회적 반응으로 지금의 자세를 취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를 주기도 하였다.

III. 작품의 조형적 표현

1. 식물에서 신체로 관심의 전환

모든 자연물을 대상으로 보던 습관은 물건에 존칭을 붙이는 버릇에서 나왔다. 물건이 인격을 갖는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만큼 인간 외의 다른 물건과 생명을 똑같이 소중히 생각하는 습관이 가장 당연한 것들에게도 의문을 품게 하였다.

초기 연구자의 작품에서 보이는 주요 매체는 ‘벽돌(또는 그리드)’, ‘나무’이다. 나무 키워드가 나오기 이전에 돌⁸⁾이라는 매체는 연구자에게 가장 흥미로운 요소로 ‘나무 ‘ 키워드에 이르기까지 가장 자주 그리기도 그리거나 길을 걸으며 눈으로 찾아다니게 되는 ’ 강박 ‘ 중 하나였다. 자연에서 볼 수 있는 ’ 타일(또는 벽돌)’ 이나 자연에서 접할 수 있는 돌맹이(또는 바위)는 연구자로 하여금 시간과 역사를 생각하게 한다. 딱딱한 덩어리에 감춰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겹겹이 쌓인 시간의 나이테 때문인지 매일같이 밟고 지나다니는 콘크리트와 벽돌의 원소(element)를 생각하지 않고는 발을 디디고 서 있는 것 자체가 불안정하게 인식될 정도로 어지럽다. 이러한 거시적 시간의 연장선에서 미시적 세계를 살고 있는 연구자 자신의 상태는 세계의 불확실성과 혼란을 견뎌낸 어지러움, 불안감을 확장시키게 한다. 그리고 그러한 감정이 작업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작품1)에서 보이는 식물의 다양한 형태는 동인천역 인근에 심겨진 식물을 사생한 것으로, 비슷비슷하게 생긴 벽돌집 앞에 죽은 듯 살아가는 생명이 주

8) 네 원소(물, 불, 흙, 공기)로 대표되는 자연에 관심이 있었던 연구자는 돌에서 나무로 매체가 변화하였음을 볼 수 있다.

는 상이한 감정을 그린 것이다. 가장 정적이면서도 소란스러운 형태로 보이는 이 식물들을 보고,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 인스타그램을 뒤적이며 나와 나의 동료들이 늘 이야기하는 ‘무기력’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어쩌면 억지로 살려놓은 듯 보이는 식물들은 빼곡한 벽돌 숲에 갇혀 빛을 쬐일 시간도 없지만, 지금의 우리 생활보다 더욱이 생기발랄하고 아름다운 아이러니한 풍경.

또 다른 방면으로는 지금의 대학로 아르코 극장(구 서울대학교) 건물 바로 앞에 살던 유년기, 새빨간 벽돌이 빼곡히 박힌 모양, 인천의 한 공단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거무죽죽한 벽돌 건물을 보던 10대 때의 경험에서 온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지금의 연구자의 풍경 인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공장에서 찍어낸 무의미하게 나열된 이 돌들의 연속이 가져다준 감정은 분열시키는 힘, 반대로 빠져나가는 힘, 반항의 힘이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존재하는 끼워 맞춘 듯 한 나무들은 연구자에게 자신 스스로를 대변해주는 존재이다.

때문에 누군가는 무의미하게 지나칠 화단의 식물을 자세히 보는 것이 연구자의 일상이다. (작품 1)에서 빼곡한 그리드 사이에 그려진 나무들과 화단에 심기거나 심기지 않은 식물들



(작품 1) <입이 없는 것들>

보면, 식물이 채 심겨지지 못하거나, 살아있는 모양이지만 흙과는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식물과 흙이 분리되어있을 때를 상상하는 것은 아주 쉽다. 뿌리째 뽑혀버린 식물을 본다는 것은 어딘가로 옮겨 심기고 싶지 않았던 식물들, 어쩌면 스스로 죽기를 택한 식물의 생명력 또는 소리없는 저항을 듣는 것이고, 허공에 떠있는 식물들을 그림으로서 생기 있는 모습을 상상해보는 것이다.

식물의 입장을 고려하게 된 계기 두 가지가 있다. 그 첫 번째는 포도농장을 하시던 외조부와 목수 일을 하시던 친조부 사이에서 자란 유년기가 있을 것이다. 모든 나무와 생명 그리고 인간이 한가지라는 것을 가장 강조하던 가족들 때문이었을까. 연구자는 나무가 곧 생명이고 스스로가 하나의 나무라고 인식하게 된다. (작품 2)에서 보이는 여성은 넓지 않은 세 개의 화단에서 식물을 심는 모습이다. 현재 재개발 지역 인근에서 살고 있는 연구자는 한남동 일대의 노인들이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화단을 가꾸고, 그것에 생명을 불어넣



(작품 2) <구근을 지키는 눈, 시리즈>



(작품 3) <구근을 지키는 눈, 시리즈>

는 일, 그것들과 교감하는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식물이 가진 아름다움을

극대화 하는 대신 그것을 살려내려고 고분분투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점점 지켜볼수록 어찌면 그들은 작은 생명과 교감하고 그 생명이 주는 경이로운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 라기 보다 억지로 잡아놓고 가두어 놓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가장 부드러운 폭력. 그리고 그러한 폭력은 연구자에게 식물로서의 삶을 고찰할 계기를 준다. ‘과연 어떤 것이 폭력이고 어떤 것이 폭력이 아닌 걸까.’

두 번째 계기는 (작품3)의 절단된 신체와 함께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사회적 이슈의 충격과 인식으로 인한 절단의 이미지가 나타났는데, 세월호 사건의 발단이 그 시작이다. 여느 날과 다를 것 없는 개개인의 삶이 뉴스에서 보도되는 온갖 사회, 정치, 경제 이슈와는 별개로 철저히 모순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가장 낮은 곳에 살고있는 인간은 비로소 스스로가 어느 사회 체제에도 속할 수 없다는 사실과 정부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린다. 그리고 이러한 인식은 되려 시민성을 가진 사람이 정 반대 방향으로 팽창하게 하는 힘을 부여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이 평소 나와 같은 세대가 느끼는 무력감과 피곤의 이유이기도 하고, 무력감과는 다른 폭력성이 그것이다. 사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그것을 인식하고도 이전과 똑같은 시민성을 가지기 어려운 것은, 이 거대한 체제 안에서 스스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돌연 가려진 막을 뚫고 고통을 감수해 내기로 결심하는데 이것이 연구자가 식물적 삶을 살기로 결심하는 처음 단계라고 볼 수 있다.

자신보다 힘없는 것들을 눈여겨 보는 것만을 떠나 그것에 부딪히기로 결심한 이후, 이러한 마음들이 세월호와 이제는 볼 수 없는 어린 꽃들의 존재는 보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 위에 도사린 쇠 그물망 같은 폭력을 철저히 바라보게 했다. 그리고 어떠한 세력이라고 불리는 존재들과 내가 다르지 않음은 몇 점의 살코기 위해 가축을 도살하고도 모자라 소 어미의 젖을 먹기위한 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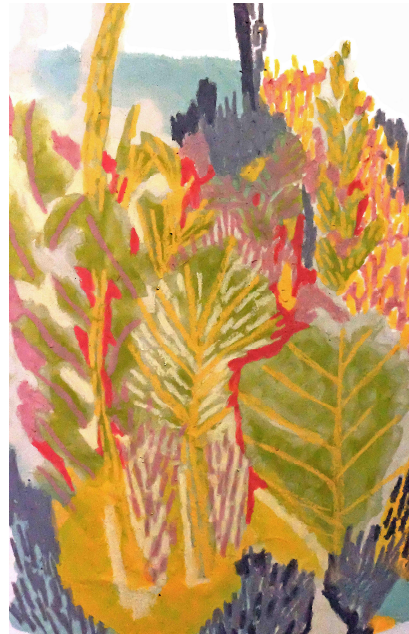
부림, 곧 태어날 아기 병아리의 식감과 맛을 기억하는 스스로가 보였다. 그리고 그것이 아주 무서운 합리화였음을 깨닫게 된다.

“내가 믿는 건 내 가슴뿐이야, 난 내 젓가슴이 좋아. 젓가슴으론 아무것도 죽일 수 없으니까. 손도, 발도 이빨과 세치 혀도, 시선마저도, 무엇이든 죽이고 해칠 수 있는 무기잖아. 하지만 가슴은 아니야. 이 둥근 가슴이 있는 한 난 괜찮아. 아직 괜찮은 거야.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이 여위는 거지. 이젠 더 이상 둥글지도 않아. 왜지, 왜 나는 이렇게 말라가는 거지. 무엇을 찌르려고 이렇게 날카로워지는 거지.” 9)

먼밭치에서 폭력을 목격하지 않았다. 태어난 순간부터 이러한 상황들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 누군가는 폭력이 당연한 세대라고 이야기 한다. 그렇지



(작품 4) <무제>



(작품 5) <소리없이 노래하는 것>

9)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p.219

만 이러한 것들을 정당화 시킬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도 없다. 한강의 「채식주의자」에서 말하는 여자의 젓가슴은 또 다른 생명을 생각하게 한다. 그리고 드리워진 다른 폭력과 비슷한 폭력을 저지르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정당화 되지 않는 수 많은 경험들이 결국 인간 또한 세계의 먹이 사슬 최하위의 존재일 수 있다고 인식하게 한다. 그리고 인간보다 더 연약한 존재들에게 귀 기울이게 되고,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 싶게 한다.

스스로 비거니즘(Veganism)에 동참하고, 식물의 움직임 자체에 큰 매력을 느끼게 된 것 또한 이러한 과정의 일부이다. (작품3), (작품4)를 보면 처음 식물의 조용한 움직임에 매료되어 그러한 형태를 추구해 온 것을 볼 수 있다.

이후로 보이는 (작품 7)에서 ‘자연, 사람, 동물’ 이 하나이고 그것이 식물이 가진 이미지와는 별개로 점차 모든 생명체가 함께 화면에 구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구자의 그림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식물의 이미지가 앞의 (작품2),(작품3)을 통해 변화하고 (작품 7)의 종합된 이미지를 볼 수 있다는 점이다. 심고 죽이는 행위에 대해서 연구자는 인간이 다른 종을 양육, 재배하는 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객체가 되는 종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시점을 여기서 볼 수 있었다.

처음 이 그림이 시작할 때, 연구자가 접한 세상과 매체는 단순한 연결고리가 아닌 다중의 연결망을 가진 형태를 띤다. 그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연구자가 평소 사용하던 유화, 아크릴 물감의 사용을 줄여나가는 것과 식물에서 사람으로 관심이 변화하였다는 것이다. 유화 물감과 아크릴 물감에 사용되는 동물성 기름과 여러 화학물질 또한 암묵적으로 이루어지는 폭력 중 하나라고 인식한 연구자는 처음 목탄과 유화 물감, 아크릴을 함께 사용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그 물감의 사용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작품 6), (작품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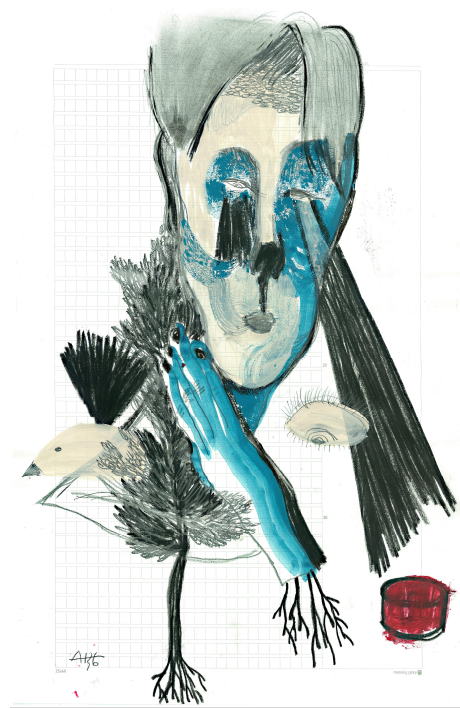
또한, (작품 7)에서 보이는 것처럼 탄생과 죽음에 대한 심볼이 처음 드러

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앞으로 자주 보이게 될 새와 동물의 형상은 연구자의 삶에 잠시 농장에 머물렀던 기억으로부터 왔다.

평범한 한국 가정 속 독실한 불교 신자와 기독교 신자의 결합은 연구자에게 이유 없는 종교적 호기심을 불러 일으켜왔다. 이성과 과학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힘으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행위 자체가 생명이 탄생하고 죽음까지 가는 길에 수많은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종교만이 아닌 삶 자체에 녹아있는 가장 기본적인 자연과 사람 간의 긴장감이라고 생각한 연구자는 이러한 메타포(metaphor)가 어쩔수 없이 연구자의 원점(유년기)에서 오고있다고 본다.



(작품 6) <자화상>



(작품 7) <병아리콩 통조림>

“순수 추억이, 이 무용한 유년시절의 무용한 추억이 얼마나 자주 몽상의 먹이처럼 삶의 여백에서 일순을 살도록 도와주는 非-生(non-vie)의 혜택처럼 되살아나는가! 휴식과 행위, 몽상과 사고의 변증철학에서는 유년시절의 추억이 아주 명확하게 무용한 것의 유용성을 말해준다!10)”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1884-1962)가 이야기한 유년시절의 기억에 대한 견해이다. 바슐라르는 유년기의 추억이 무용하되 유용한 것으로 본다. 결국 유년기의 기억은 예술가가 작업하며 평생 가지고 있으며 꺼내 볼 추억이자 영감이다. 그리고 작품에서 보이는 매개로 연구자는 어쩔 수 없이 연구자 자신을 과거로 불러냈다가 다시 현재를 바라보게 하고 희망하는 미래를 집어넣는다.

또한 바슐라르가 자연의 성격을 대표하는 요소(물, 불, 흙, 공기)들은 각각의 물질 원소마다 고유한 특징을 지니며 자연 요소들이 끊임없는 생성을 위해 모든 존재를 받아들이고 품기도 하며 변화시키고 파괴하며 끊임없이 순환한다고 한다11)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자연과 인간의 상생과 조화를 간절히 꿈꾸지만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회에 비판의식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는 사회적 충격에 피로함을 느끼고 조각을 맞추기 힘든 사건들의 동시다발적 분출이 반대로 연구자가 사회적 화두에 초점을 맞추게 하였다 (작품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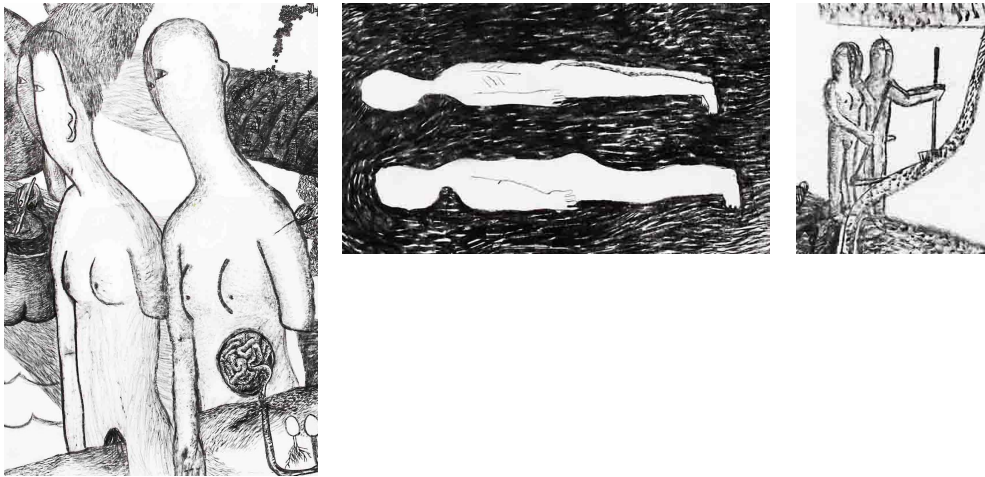


(작품 8) <타나토스 레크레이션>

10) 가스통 바슐라르, 「몽상의 시학」, 기린원, 김현 역 p.132

11) 가스통 바슐라르(Gaston Bachelard), 「공간의 시학」, 광광수 옮김 (동문선, 2003)

여기서 연구자의 작품에서 나타난 <두 인물>, <유토피아-풍경>, <자화상>으로 나뉜 그림의 분류를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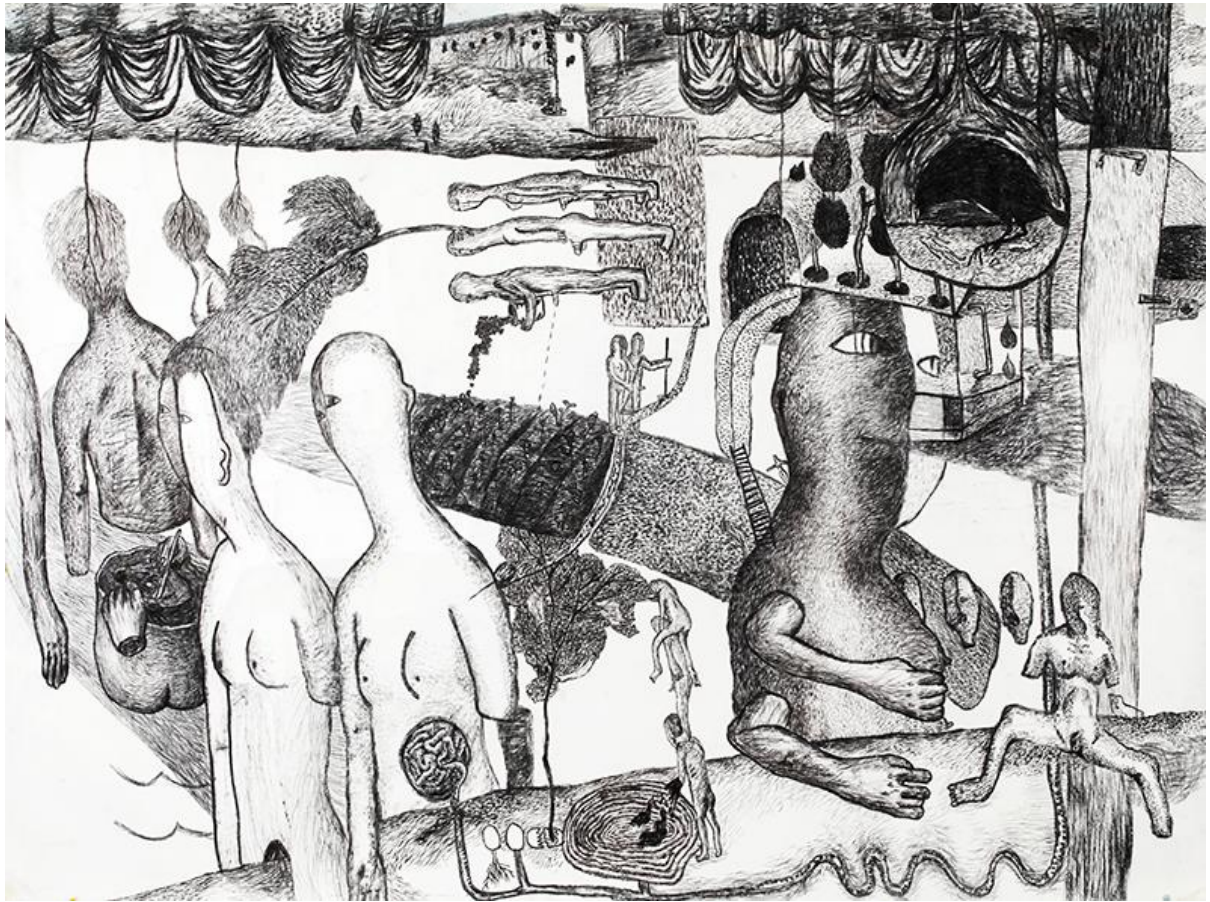
(작품 9-1) <귀먹은 청중> Details

먼저, <두 인물>은 주로 연구자의 그림에서 보이는 두 쌍의 인간이다(작품 9-1). 이것은 앞서 언급한 유년기에 대한 기억과 연결될 수 있다.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사회로 성별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한 하나의 ‘존재’와 ‘존재’의 만남이다.

또, 직접 맞닿아 살고 있는 사회적 사건을 피부로 느낀 연구자 스스로가 그것을 내면에서 외면으로 끌어내기 위해 <자화상>을 자주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작품 6), (작품 7).

그 후 내면에 존재하던 발상이 <유토피아-풍경>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작품 8), (작품 9-1, 2).

자연의 일부인 인간을 현재에서는 특히나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보고 있지만, 결국 우리는 자연의 일부이기에 인간이 나누어 인식하는 방법을 버리고



(작품 9-2) <귀먹은 청중>

둘이 아닌 여럿이라고 인식할 때 비로소 완성된 하나의 세계가 완성된다고 보았다.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 ‘돌봄(Caring)¹²⁾’이라는 개념이 등장한 (작품 9-2)에서는 생명이 순환하는 것을 존중하는 마음 자체를 통해 우리시대 현대인의 모습을 그려낸 것을 볼 수 있다. 미디어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극적인 살인행위들이나 무작위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인체를 표현한다. 여기서 그림은 저널리즘이 가지고 있는 무분별한 내뱉기 방식은

12) 여기서 연구자는 식물을 키우는 손길, 동물을 돌보는 마음,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통틀어 ‘돌봄’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단순한 분출일 뿐, 실제의 의미를 퇴색시켜 수용자에게는 전혀 다른 감각으로 인식이 된다는 것을 상기시킨다. 우리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가난에는 더욱 관심이 없어진지 오래이다. 때문에 중심부의 권력은 견고해지고, 주변부는 소외되며 타자화 된다. 이것이 지금 현대사회가 우리 선조들이 미덕이라 여겼던 것들의 정 반대를 살아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개인들은 지극히 자신이 지금 얼마나 폭력적인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점점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다. 수많은 도살장과 가공식품 공장에서 볼 수 있는 비닐 껍데기와 실제 동물의 껍데기가 다르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인간이 권력을 가지고 인간/동물의 이분법적 사고에 완전히 심취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듯 보인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해체’의 형태를 띤 메시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때문에 후에 본론 2장에서 다룰 해체/해부/절단의 형식을 띤 그림이 된 것이다. 그것들이 시간/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화면 안에 나열된 것이다

2. 목탄 드로잉과 드리핑 기법

연구자의 그림이 변하고 주제가 점차 확대됨에 있어 가장 크게 변화한 것은 재료의 선택이었다. 재료는 결국 자신이 쓰는 가장 가까운 물질이고 그것이 자신을 대변하는 것으로, 아무 재료나 쓸 수 없게 된 이유는 대부분 물감에는 폭력적으로 착취된 동물의 뼈나 노동력이 일정 필요 이상 소비되는 이유 때문에 윤리적인 이유로나 경제적인 이유로나 그것을 선택해서 소비하는 것이 연구자 스스로의 작업에는 부적합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2년 전 처음 환경문제, 생태계문제, 여성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을 때, 돈을 소비하고 얻는 가장 가까운 소모품인 생필품의 원재료나 사용되

기 이전의 무분별한 동물실험은 연구자에게 충격을 주기 충분했고, 먹고 입고 소비하는 모든 시스템 구조에 의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정치적 세력, 경제적 세력이 거대 자본을 늘리기 위해 더 많은 아이들을 일하게 하고, 더 많은 동물을 죽이고 있는 사실을 광고라는 거대 시스템으로 다시 한번 사람을 눈감게 하는 것에 분노했다. 물건을 소비함으로써 그 자체를 즐기고 향유 하는 데에만 초점을 맞추게 하는 것이 이 사회 시스템의 목적이라면, 결국 예술가에게는 ‘물감’이라는 가장 필수적인 물품을 이용하는 데에도 적절한 범주와 규칙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때문에 작가는 검은색을 사용하는 것에 가장 주의를 기울였다. (작품 9-2) 검은색을 더욱 검게 만들기 위해서는 동물의 뼈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서양화 재료에는 동양화 재료보다 더 많은 동물성 기름과 동물성 안료가 들어가며, 보통은 동양화 물감보다 훨씬 비효율적인 시스템을 가지며 인체에 유해하고, 또는 유해하지 않도록 더 많은 동물실험을 감행하며 만들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동양화 물감에는 먹과 기타 자연재료와 같은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고 그것은 연구자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했다.

특히나 목탄은 가장 자연에서 얻기 쉬운 검은색이다. 그리고 가벼운 질량으로 여행이나 이동 중에 작업이 편리한 것, 순간의 감정을 바로 표출해야하는 상황에서 목탄은 가장 최적의 재료이다. 목탄드로잉을 시작한 것은 2016년 서양화 재료의 혼합으로 인해 마띠에르가 생긴 그림에 묘사하기가 어려운 설명이나 정리를 위해 사용했다. 그리고 밖에서 빠르게 드로잉 하는 상황에서 휴대하고 다니던 목탄과 콘테를 이용한 것이 작품과 잘 맞아떨어져 자주 사용하게 된 것 시작이다.

현재의 ‘물감 ‘ 또한 공해로 인식하기 어렵겠지만 연구자의 입장에서 이미 물감을 비롯한 인간이 쓰기 위한 수많은 화학약품을 위해 수많은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다는 물감시장에서의 환경과 생명 보호 가능성은 희박하며, 오



(작품 10) <군중>

히려 동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생태위기를 논하게 되려면 먼저 인간과 인간 사이의 평등의 단계가 어느 정도 높은 수준에 이르러야 비로소 생태계까지 논의가 미치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는 ‘남-여 평등’의 상황까지도 미치지 못한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물감의 폭력성까지 걸고 넘어갈 날이 조금은 멀리 있어 보인다. 먼저 반핵, 동성, 환경이라는 순서로 에코페미니즘이 태동했고(남미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환경의 문제로 충분한 대화가 오고갈 수 있도록 아직 해결되지 않은 여러 평등구조에 대한 싸움과 문제의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 그리고 연구자는 이러한 대립 속에서 구체적 삶의 문제와 생태적 문제 그리고 정치사회적인 관심을 통합시키려는 노력자체를 통해 재료의 선택으로 나타난 것이다.

계속해서 그리는 ‘방법’에 있어서 연구자가 변화된 과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할 때 작업의 특징이 주로 ‘여성주의 : 페미니즘’의 일환으로 연결되어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은 경험적, 인식적, 개념적 영역으로 연구자에게 있어 남성위주 사회체제 안에서 스스로를 재생시키는 방법으로 연구자가 작업에 착수할 때 가장 쉽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재료를 위주로 다루게 되지만 또 늘 전통을 고려하게 되는 마음가짐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통 기법에서 벗어난 후 그림을 화판에 고정시켜 세로로 그리는 방법 때문에 점점 물감이 흐르는 효과를 보게 된 연구자는 이것이 단순히 지적분한 방식이 아니라 흐르는 물감이 다른 방향에서 흐르고 있는 물감들과의 혼합효과로 작업을 착수하는데 흥미를 느꼈는데 (작품 10), 이것이 의도와는 상관없는 색깔의 번짐이나 구성을 만들어 내는 것이 주는 재미 때문이었고, 드리핑을 하는 동시에 여백이 생겨나는 것은 스케치 없이 작업에 착수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로, 지금의 동양화 전통기법보다 훨씬 동양적인 방식이라고 스스로 생각했다.

그것은 동양화가 단순히 그리는 방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철학적인 의미에서 그림이 가장 동양적으로 되는 것이 바로 어떤 것에도 해끼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스케치 없이 바로 종이 위에 칠해지는 ‘기운(氣韻)’의 절제, 억지로 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흐르면 흐르는 대로, 칠하지 않은 부분은 칠하지 않은 대로 두는 ‘유유자적(悠悠自適)’의 상태에 이르는 것에 의의를 둔다.

IV. 결 론

끊임없는 사회적 충돌을 바라보며 연구자가 느낀 것은 단순한 폭력적인 상황이 아닌 생명 자체를 위협하는 ‘폭력’을 보게 하였다. 그리고 그것이 여태 사회에서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한 나머지 소외받고 아픈 존재를 숨 쉬기 어려운 현실로 만들어 놓은 현실을 그리게 했다.

이렇게 이전에는 대상에게 목소리가 없어 ‘존재’로 인식하지 않는 현실에 대한 물음, 또는 그들의 단순한 움직임에 중점을 두었다. 그런데 얼마 전 인도에 다녀온 이후, 그러한 존재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에 대해 인식하기 시작했고, 인간에게 혐오감, 더러움을 유발하는 구토, 배설물, 또는 피부라는 외부 조직과 내부에 존재한 신체 장기, 내부에서 외부로 배출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것들이 흙에서 존재하고 흙으로 돌아가게 되는 가장 자연스러운 과정들이 함께 꾸준히 ‘순환’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관심으로 자연스럽게 옮겨갔다.

연구자가 살아온 성장배경과 성향을 토대로 처음엔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식물에서 시작해 ‘몸의 정치’로 태도를 변환한 연구자의 ‘신체’와 인간의 ‘신체’로 주제가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1971년 MIT대학에서 여러 설치조각가들이 함께한 <Corporal Politics>라는 전시의 의의와 ‘에코페미니즘’에 받은 깊은 감명이 함께 움직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약자들의 이야기와 가부장적 한국사회는 연구자에게 신체를 이용한 작업을 시작하게 하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였고, 결과적으로 인간또한 자연 안에서 서로 순환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까지 이르렀다. 인간 또한 결국 자연의 일부분으로 존재하며 사람이나 동물의 몸 속에서 혈관을 통해 모든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하는 주요한 물질인 피뿐만 아니라 정액, 젖, 눈물, 점액질, 소변, 등 신체안에서 각기 다른 기능을 하는 것들이 어떻게 자연의 순환과 다르지

않은지에 대해 이야기 하면서 인간은 스스로를 어떻게 보호하는지, 내부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반복(종교의식, 도덕성, 신성함과같은 키워드로 무장된)에 대한 경외는 있어도 그 외의 생명에 대한 의식에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이야기해왔다.

재료 또한 연구자가 쓰던 전통 동양화 재료에서 혼합 매체, 설치까지 다양하게 이루어 졌다가 점차 목탄, 연필과 같은 재료로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전부 연구자가 스스로의 신체와 맞닿아 지는 것, 소비하는 모든 부분까지 어떠한 폭력적인 과정도 용납하지 않게 된 이유이며, 아무런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은 상태를 변화하려는 의도에서 시작된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결국 ‘인간’ 이외의 생명을 존중하기 하기조차 어려운 작은 땅덩어리에 촉박하게 살아가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다수의 폭력으로 인식되어, 사회적 이슈로부터 개인을 멀어지게 하고 개입은 더 떨어져 인간소외를 낳고 생태계 파괴를 낳았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은 연구자가 보고 느끼고 있는 순간에서 선택할 수 있는 재료와 주제로 그것을 표현하게 만들었다.

다만, 주제의 통일성과는 다르게 다양하게 나타난 기법과 재료가 작품 전달에 있어 혼란을 준 것을 볼 수 있었다. 실제로 중간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표현된 그림에게는 아쉬움이 남을 수 밖에 없었다.

점점 동양화 전통 재료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평소 자연과 인간,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을 동양 철학적 관점으로 현대를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전통에 대한 고찰은 존재하지 않지만 분명 동양화라는 것에 대해 고찰해볼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동양화’ 라는 전통재료보다 현대적 이슈를 선택했기에 더욱 고심해 볼 여지가 있음에도 주제의 깊이에 있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아쉬움이다.

하지만 연구자가 평소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사회적 이슈에서부터 느껴지는 괴리감, 그로인한 약자의 소외, 주변부의 타자화, 생태계 파괴, 육식 포

화와 같은 ‘폭력, 욕망’ 이라면 그것을 스스로가 하나의 생명으로 어떻게 ‘절제, 변화’ 하려 했는지 재료의 선택이나 주제의 변화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작품이 되어 보여 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만, 여기서 가장 아쉬운 것은 여성의 타자화와 식물과 동물의 타자화로 인한 ‘연민’의 감정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도 결국 연약한 것들을 연약하다고 인정한다는 것은 실제 수동적 대상으로 한정 짓고, 주체성이 없는 존재처럼 만들어버리는 일에 동의하는 듯 보인다. 이는 물리적, 호르몬적 차이점을 또 다른 일반과 특수를 이중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모순을 보이며, 그것에 대한 특별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것들 때문에 연구자는 논문에서 만큼은 ‘연민’의 감정이 최대한 드러나지 않기를 원했다.

앞서 에코페미니즘을 언급할 때, 여성의 신경화와 여성의 호르몬적, 물리적 요건을 자연과 빗대어 더욱 ‘우월’하다고 인식하는 에코 페미니즘 이론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 것처럼, 연구자는 그림에서 어느 하나의 동물이 우월하다고 인식하지 않으며, 서로의 대립을 조장하기 위한 그림을 그리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자 한다. 단지 한국 사회 내에서 여성으로서 살아가며 가지게 된 특징과 그로인해 나타난 표현, 생각 등을 정리한 것으로 본다. 앞으로는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더욱 다양한 매체로 또는 주제로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무대에서 보여 지기를 희망한다.

참 고 문 헌

<국내 단행본>

- 한강, 「채식주의자」, 창비, 2007
- 이상화 외, 「지구화 시대의 현장 여성주의」,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7
- 이지훈, 「예술과 연금술, 바슐라르에 관한 깊고 느린 몽상」, 창비, 2004
- 천경자, 「꽃과 영혼의 화가 천경자」, 랜덤하우스중앙, 2006
- 박영택, 「식물성의 사유」, 마음산책, 2003

<국외 단행본>

- Philip Shaw, 「Abjection Sustained: Goya, the Chapman brothers and the Disasters of War」, 2003
- 가스통 바슐라르, 「몽상의 시학」, 기린원
- 신두호, 「남성과 에코페미니즘」, 삼척대학교, 영미문학 페미니즘 제 9권, 2001
- 이상화, 「여성과 환경에 대한 여성주의 지식생산에 있어 서구 에코페미니즘의 적용가능성」,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철학 제 16권, 2011

<국내 번역본>

- 린다 노클린, 「절단된 신체와 모더니티」, 조형교육, 2001
- 린다 노클린, 「페미니즘 미술사」, 도서출판예경, 1997

<학위논문>

- 선영란, 「영국현대미술에서 나타나는 신체이미지의 특성에 관한연구」, 경희

대학교, 2008

이미경, 「절단된 신체 조각 연구」, 숙명여대

이평전, 「이데올로기"와 "폭력"의 관계성 연구」, 충남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2

<국내 학술지>

김영애, 「장 피에르 레이노의 작품에 나타난 자기 치유적 특성」, 현대미술사학회, 2001

구선정, 「빌 비올라(Bill Viola)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물불공기흙 : 바슐라르(Gaston Bachelard)의 자연요소에 대한 이론으로 접목고찰」,

ABSTRACT

A Study on Plant Life through Human Body Expression: Focusing on the Researcher's Own Works

SOOJEONG YIM
Oriental Painting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research studied vegetability related to severed body expression shown in the researcher's drawing exhibited in 'Portrait of the Forest' in March 2018. The severed human body expression as well as the expression of various plants in the researcher's painting has changed from an abstract expression using materials for oriental paintings to the drawings of severed human body through various media. The ideological change and various conflicts in Korean society in the 2010s, combined with the resultant college years of the researcher as well as the present environment, are shown in the evolutionary process of her works. Furthermore, it was observed that the researcher's body was expanded and materialized with plants as a woman in the flow of the period with various responses in accordance with the history and flow of Korea including the current conflicts between men and women, the gap between the rich and poor, and issu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is research shows changes of the features of a woman's body in regards to the researcher's social and personal interests including both responses and reflections that take into consideration the life of plants.

In this research, the researcher considers that two of the most significant accidents including the Sewol Ferry Disaster on Apr 16, 2016 and the influence—peddling scandal from Nov 17, 2016 to Jan 15, 2017 had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on her paintings. It was shown that changes of such extreme incidents had also influenced her overall her awareness.

The overthrow of the public order affects almost every artist. While the uncertain future of modern society is generally consider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extended definition of the concept that the encounter with an unfamiliar, isolated world as well as irrational things, instead of paintings through actual experiences, is not only applied to the field of paintings in the modern period but also connected with problems in the actual world has been generalized. The opinion that the body, life and death of individuals who are neglected in the social phenomena with a clear cause—and—effect relationship can never be free or be far from each other within society provided the opportunity to think through the above mentioned accidents. Those two accidents are personally considered to have had huge effects on the researcher's works. Francis Bacon (1909~1992, England), the author who had a consistent attitude with artistic responses as an artist and a life not against the social system despite not being free in it, expressed his circumstances in the most clear way to show his love and hatred toward his life by arranging his own environment with the human body by acknowledging that it is difficult to separate bones and flesh within the

formed screen (frame). Moreover, Damien Hirst (1965~, England) who showed the extreme state of human beings through hysteric installation, is known to leave multiple appreciation of unpleasure, fear, humor and wit for those who see the perspective of dichotomous world of the modern people's life and death and art and medicine. One of the most well known Korean artists, Chun Kyung-Ja (1924~2015, South Korea) described the chaos in the Korean society after the liberation and what she had seen traveling around the world through glamorous women, scenes and dreamlike world in her paintings with the theme of maternal instinct and love. The three artists prove that expression of figures or the world, which are unrealistic and far from general circumstances, is only the medium that delivers fundamental and strong senses in artistic works, and that social issues brought to the artists are expressed actively as well as accepted sensually. In this context, the researcher's works begin with quickly drawing social impact as well as personal changes emphasizing emotions. Such drawings turn into images filled with colors or images without any colors at all, and are separated into plant or body expression. The formats always have three factors of <two figures>, <utopia -scenery>, and <self-portrait>. The researcher describes the relationship between characters with plants, and shows invisible violence in the society through severed human body. Moreover, the two sometimes appear in the world that has never been seen before at the same time. Through several accidental incidents and social issues, the researcher vegetalizes herself, and changes in body expression are more seen than technical changes. The self-portrait, which becomes the most common topic, is the figure seen most closest and the factor that oneself who is the

conversation partner is directly matched with vegetability, and is frequently used as a body expression tool.

Although paintings of the researcher who had been used to the traditional technique were mostly focused on scenery, they were changed to a quick drawing type, enabling various experiments of media. Starting from the attempt to express scenery with conte, portability and consistent use of dry materials that enable quick and sensitive expression of the emotions have changed paintings, and various materials with rough texture such as brick powder, dirt, concrete powder, and dust, instead of traditional materials or existing art supplies, were used for paintings. The drawing technique was changed from describing rough and speedy scenery and shapes to reduced intention of the artist including splash of paint due to momentary emotional explosion, dripping technique due to the gravity, stains left on the back of the paper, and painting by mistakes.

The efforts of the researcher to express herself and deliver messages during the past short research period went through the abovementioned process from consideration on vegetability to severed human body. Spending the most sensitive and sharpest 20s amongst the social phenomena, the researcher's experience all starts from thoughtless notes, is perceived through 'sense of pain,' and is expressed with 'fear' that is reflected inside. Therefore,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human body expressed by the researcher is social anxiety felt by her, and the face of the modern people and herself created by the will to fight with such anxiety and consistently control her reflection and fear.